

非同盟과 國際政治의 新모델

康 根 亨*

目 次

- I. 序
- II. 國際政治上의 非同盟主義
 - 1. 非同盟主義의 概念
 - 2. 新生國이 非同盟主義를 標榜하는 理由
 - (1) 國際政治的 理由
 - (2) 國內政治的 理由
 - 3. 非同盟運動의 發展過程
- III.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非同盟의 役割
- IV. 非同盟과 國際政治의 新모델
- V. 結

I. 序

60年代 이후 國際政治의 양상을 살펴보면 19세기나 冷戰時代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強大國이 冷戰時代 이전에 비해 월등히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弱小國에 對해 자신의 意思를 전과같이 강력하게 관철 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對한 理由로는, 첫째로 2次大戰 이후 出現한 아시아·아프리카 新生獨立國들이 자신들의 利益을 냉엄한 國際政治上에서 實現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非同盟運動을 창출함으로써 強大國의 現狀維持勢力(status

* 국민윤리교육과·전임 강사

- quo power)에 對한 강력한 反現狀維持勢力(anti - status - quo power)으로서 대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美·蘇間의 核水準이 공포의 均衡을 형성할 만큼 서로 비슷하게 되어 사실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核膠着狀況을 이용하여 弱小國들이 그들의 이익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非同盟의 抬頭과 核膠着狀況으로 힘이 相對的으로 弱化됨에 따라 勢力均衡(balance of power)의 황금시기였던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國際政治狀況을 설명할 수 있었던 現實主義理論인 「 힘의 모델 」(power model)만으로는 현재의 國際政治狀況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힘의 사용에 의한 解決보다는 國際輿論, 道德律, 國際法, 國際平等에 입각해서 서로의 妥協과 調整(steering)을 通하여 國家間의 問題를 해결해 보자는 「 決定作成모델 」(decision - making model)이나 「 커뮤니케이션모델 」(communication model) 등이 現國際政治狀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것 같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와 같이 非同盟의 登場이 國際政治 分析에 있어 새로운 모델(「 decision - making model 」 또는 「 communication model 」)을 제시해주는 것이라는 觀點에서 非同盟 運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章에서는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非同盟主義에 관해 살펴보고, III章에서 非同盟의 役割을, 마지막으로 IV章에서 非同盟이 마련하는 國際政治의 새로운 모델을 考察해보고자 한다.

II. 國際政治上의 非同盟主義

第2次大戰後 國際政治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特徵은 第3勢力인 非同盟의 出現과 이들의 影響力이 擴大되고 있다는 점이다.

戰後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美·蘇兩極의 冷戰體制下에서 抬頭된 非同盟은 國際的 運動으로서 오늘날 國際政治에 重要的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非同盟의 出現과 그 勢力擴張은 戰後 西歐列強의 殖民地終熄과 全世界를 파괴할 수 있는 武器體系를 지닌 美·蘇間의 對決이라는 二大 國際的 事態와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으며, 戰後 國際政治에 일어난 가장 重要的 事態이기도 하다.¹⁾

1) Myron Weiner, "Neutralism and Nonalignment",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XI, P. 166.

오늘날 非同盟諸國은 國際政治 및 國際經濟秩序를 變革시키기 위해 團合된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行動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단합된 政治的 힘이나 要求의 性格으로 보아 今後의 國際政治體制의 性格을 定함에 있어 長期的으로는 核抑止體制 못지 않은 重要的 役割을 할 것이며, 美國을 비롯한 強大國들도 이들의 要求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²⁾ 그래서 本章에서는 非同盟主義의 概念, 新生國들이 非同盟主義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國內外的인 理由, 發展過程에 對해 살펴보겠다.

1. 非同盟主義의 概念

世界 2次大戰의 終焉는 수많은 新生獨立國家가 世界政治舞臺에 出現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들 新生國은 獨立과 領土保存, 代表能力의 強化를 위하여 必要的인 대부분의 條件을 갖추지 못한 弱小國이었다. 이들 諸國은 戰後 世界秩序를 兩分한 冷戰體制下에서 自存을 위하여 可能的인 한 美·蘇兩陣營에 가담하지 않는 中立主義 또는 非同盟政策을 標榜할 必要性을 切感하기 시작했다.

非同盟 (non-alignment) 이란 第2次大戰後 國際政治에 새로이 대두한 現象으로 中立主義 (neutralism)³⁾, 積極的 中立 (positive neutrality), 불력불가담 (non-bloc) 등의 多樣한 用語로 表現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事實은 國際情勢의 變遷에 따라 그 外延을 달리하여 왔고, 따라서 그것이 갖는 現實的

2) 金相俊, “國際政治에 있어서 非同盟의 意義” 「國際政治論叢」, 第17輯(1977), P.68.

3) 中立主義는 國際法上의 中立 (neutrality) 과 中立化, 永世中立이라는 概念과 구별된다. 즉 中立은 戰爭當事國에 對해서 戰爭에 參加하지 않는 國家의 一定한 權利와 義務를 포함한 法的地位를 말하며, 中立化는 19세기에 強大國이 戰略的으로 중요한 弱小國을 國際競爭의 道場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取해진 政策이며, 永世中立은 戰時에는 戰時中立의 法的權利와 義務를 지키며 平時에는 非同盟政策을 취하는 戰時中立과 非同盟主義를 종합한 것이다.

이에 反해 非同盟中立主義는 戰後 전통적 의미의 戰爭이 아닌 冷戰이라는 새로운 意味의 非交戰的 對立的 國際關係에서 어느 한 블럭에의 가담을 거부함으로써 對外的 自主性과 自國의 利益과 安全을 追求하는 積極的 姿勢를 취하는 理念의 側面을 특징으로 하는 國家政策이다. 이런 意味를 지닌 非同盟中立主義를 여기에서는 편의상 非同盟主義라고 記述하였다.

朴尙植, 「아프리카外交論」(서울: 法文社, 1975), pp. 80~90; 徐在萬, “非同盟의 概念과 現實 局面의 史的 展開,” 「政經研究」(1976年 1月), P.102 各各 參照.

局面的 다양성 때문에 지극히 不透明하게 나타나고 있다.⁴⁾ 또한 이 運動의 指導者들도 어느 것도 그들의 路線을 정확하게 表現하고 있지 않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非同盟主義란 國際權力政治 狀況下에서 어느 強大國, 어느 블럭 (bloc) 에도 예속되지 않고 自主的으로 對外關係를 가지려는 아시아, 아프리카 新生國들의 外交路線 또는 國際的인 姿勢로서 이들 諸國의 國家利益과 安保를 위한 行動方針 내지 그 意志라고⁵⁾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非同盟主義를 견지하고 있는 「第3世界」⁶⁾는 自由世界나 共產世界들처럼 어떠한 確切한 體系的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朶쳐진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共通된 利益을 추구하고 또한 同盟體制에 의해 左右되는 국제무대에서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某種의 行動目標을 實現시키기 위한 現實的인 必要性에서 同盟과는 서로 다른 性格의 그룹을 形成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들이 共通的으로 표방하는 非同盟主義의 對外政策路線은 2차대전후 獨立한 新生後進弱小國家들의 國家的 個性이 다분히 이데올로기의 表現된 것이며,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主張과 口號 속에는 共通된 世界觀과 이데올로기의 內容으로 주로 反植民主義, 積極的 中立, 平和共存을 基本的 理念으로 내세우고 있다.⁷⁾

따라서 이와 같은 基本的 理念을 표방하고 있는 非同盟 諸國은 對外路線에서 자연적으로 反西方的이며 改革的인 姿勢와 國際權力政治 狀況에 對한 脫權力政治的이며 平和主義的인 能度를 견지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對外的 姿勢는 植民地統治下에서 그들을 착취했던 先進 資本主義國家들에 대한 강렬한 反感에서 비롯된다. 즉, 그들을 支配했던 舊植民地本國이 戰後의 國際關係에서 資本主義

4) 徐在萬, loc. cit., P.101.

5) Myron Weiner, loc. cit., P.166.

6) 第3世界란 非同盟의 概念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념으로 學者마다 약간의 견해의 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第3世界를 規定하는 기준으로 5가지로 구분하면, ① 政治的으로 非同盟中立國이고, ② 經濟的으로 貧國, 底開發國이며, ③ 文化的으로 非西歐的이고, ④ 人種的으로 有色人種이며, ⑤ 地理的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地域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意味에서 이와 같은 項目에 第3世界를 規定하여 個別國家들을 적용한다면 論理上 모순점이 많으나 본질적으로 世界霸權主義를 反對하고 國際平和主義를 추구하는 國家중 政治的으로 非同盟中立主義를 外交의 基本路線으로 표방하는 國家群이며 經濟的으로 工業이 발달하지 못한 開發途上國家라고 規定지을 수 있다.

柳正烈, “第3世界에 대한 外交의 對應,” 「政經研究」(1976年1月), P.110;

梁興模, “非同盟의 向方과 南北外交,” 「新東亞」(1975年9月), PP.93~94各各 參照.

7) 河珉根, “第三世界の 이데올로기,” 「北韓」(1975年10月), PP.188~189.

를 指向하는 西方陣營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戰後의 國際政治·經濟構造에 있어서도 新生後進國인 자신들과 先進資本主義國 사이에는 經濟的 不平等이 深化되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신속한 經濟發展을 추진하려고 하면 할 수록 그들은 國際經濟體制로부터 壓力을 느끼게 된다는 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感情에서 그들은 쉽게 反西方的이며 反現國際體制的이고 軍事同盟, 勢力均衡 등 權力政治下의 戰爭防止手段에 根本적으로 反感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들이 主張하는 平和主義는 非同盟國家에게 國際平和守護의 役割을 한다는 自負心과 使命感마저 주며, 物理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強大國에 對해 平和의 使徒로서의 役割을 하고 있다는 道德的 우월감을 주게 되었다.⁸⁾ 그러므로 이러한 特徵을 지닌 非同盟國家에서 우리는 民族主義와 강인한 獨立意志 및 自立意識은 물론, 反植民主義的 感情, 經濟的 後進性, 不公平한 現國際秩序에 대한 反撥의 態度 및 人種的·文化的 側面에서 反強國의 感情 등을 發見할 수 있다.⁹⁾ 非同盟國家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共通點으로 인해 이 路線을 추구하는 國家들이 國際적으로 규합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國際政治上에서 그 勢力을 擴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新生國들이 非同盟主義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國內外的인 理由를 살펴보기로 한다.

2. 新生國이 非同盟主義를 標榜하는 理由

(1) 國際政治的 理由

新生國이 非同盟主義를 택한 國際政治的인 이유로는 反植民主義, 獨自의 國家建設, 強大國의 基地化에 對한 反對 및 平等的 國際關係에 대한 希望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⁰⁾

첫째, 反植民主義: 新生國은 언제나 자기 나름의 個性을 發見고양시키려 하고, 이전의 植民地 支配者와 同盟을 맺지 않으려 하며, 強大國들 사이의 紛爭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非同盟政策으로 나타난 新生國의 反植民主義이다. 新生國들은 植民統治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植民主義의

8) 金相俊, loc. cit., PP. 70~71.

9) Ibid., PP. 51~70.

10) 梁東安, “非同盟의 論理” 「다리」 (1972年 7月), PP. 49~51; Myron Weiner, loc. cit., P. 167.

本質을 잘 안다. 그래서 新生國들은 남아있는 植民地的 잔재와 植民地的 依存關係를 배제하기 위해 舊植民本國과의 관계를 철저히 청산하려 한다. 新生國들은 또 종전과 비슷한 性格의 新植民主義 (neo - colonialism)가 침투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強大國과의 依存關係를 맺지 않으려 한다. נות그릇과 질그릇이 부딪치면 언제나 질그릇이 깨지기 마련이며, 질그릇이 깨지기를 면하려면 נות그릇과의 관계를 삼가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질그릇인 新生國이 獨立을 확보해 가려면 נות그릇인 植民勢力과의 관계를 청산, 삼가야 하는 것이다. 가령 1956年 이집트의 나세르가 수웨즈運河를 國有化함으로써 英國의 植民殘滓를 일소하고, 뒤이어 이집트의 主權을 존중하지 않는 西方國家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事例라 할 수 있다.

둘째, 獨自的인 國家建設: 新生國들은 獨自的인 국가건설을 희망한다. 新生國들은 強大國들의 간섭이 독자적인 國家建設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強大國과 同盟關係를 맺게되면 新生國이 그들의 國家建設에 국가총력을 기울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新生國들은 가능한 한 獨自的인 힘으로 국가를 건설하려 하며 強大國들이 이러한 그들의 努力에 대해 방관해 줄 것을 바라는 점에서 非同盟을 선언한다.

또한 신생국들은 經濟發展에 必要한 資本을 強大國들로부터 들여오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條件있는 經濟援助는 그들의 獨自的인 國家建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新生國들은 非同盟을 선언하여 대립하는 東·西兩陣營의 強大國들로부터 조건없는 경제원조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新生國들은 西方側이나 共產陣營에 의존하지 않는 獨自的인 國家를 建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지어는 東·西兩陣營의 強大國을 利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強大國의 基地化에 對한 反對: 新生國들은 과거 植民勢力이었던 強大國들에 對해 일종의 피해망상적 경계심을 갖는다. 따라서 그들은 強大國이 新生國이나 新生國의 이웃에 軍事基地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신생국에 基地를 설치한 후 保護의 구실로 신생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意志下에 신생국들을 종속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생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對象은 경제원조라는 미명을 쓴 新植民主義의 침투와 社會主義의 帝國主義인 것이다. 따라서 新生國들은 舊植民勢力의 復歸와 新植民

主義 및 社會主義의 帝國主義의 침투에 발판을 제공해 줄 軍事基地의 설치를 반대한다. 즉, 新生國들은 非同盟主義 및 平和地域을 선언함으로써 東·西兩陣營의 基地설치의 욕구를 방지하려 하는 것이다.

네째, 平等한 國際關係에 對한 希望: 新生國들은 모든 國家가 平等한 主權을 가질 것을 원한다. 그들은 國力에 의해 主從關係가 이루어지는 國際體制를 반대한다. 그런데 同盟關係를 맺으면 強大國은 同盟內의 弱小國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일방적인 影響力을 行使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新生國들은 國力에 의해 宗主國과 衛星國으로 구분되어지는 그와 같은 同盟體制를 거부하고 非同盟主義를 택한다. 新生國들은 同盟體制를 거부함으로써 對立하는 兩大陣營을 이용하여 「정신적 平等」을 누릴 수 있으며, 오히려 非同盟의 입장에서 國際主義를 주장함으로써 強大國들에 對해 國際倫理上의 우월성을 누리게 조차 한다.

요컨대 新生國들은 非同盟主義를 표방함으로써 東·西가 대결하는 冷戰狀況下에서 어느 한쪽에 의해 支配당하지 않고, 그들의 獨自的인 國家建設을 이룩하며 아울러 強大國들과 平等한 국제적 지위를 얻으려 한 것이다.

(2) 國內政治의 理由

新生國이 非同盟主義를 택하게 되는 國內政治的 理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新生國은 獨立을 달성한 후, 가장 시급한 당면 목표를 經濟發展을 이룩하는데 두고 있는 바, 그 理由는 新生國의 政治的 獨立이 經濟的 獨立을 수반해야만 확고히 향유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舊植民本國이나 또는 다른 強大國에 예속되는 事態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新生國의 經濟發展과 獨立은 기왕의 植民地經濟的 隸屬狀態를 탈피하고 그 잔재를 일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新生國에 있어서 植民地經濟의 잔재를 일소한다는 것, 그리고 經濟的 獨立을 이룩한다는 것은 우선 單一栽培方式에 기초한 從屬的 資本主義經濟體制를 파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였건간에 기왕의 植民勢力에 의해 扶植된 資本主義經濟體制를 파괴하는 것이 곧 新生國이 經濟的 獨立을 達成하는 제 1 보인 것이다. 그리고 新生國의 인테리層間에는 레닌의 帝國主義論의 영향을 많이 받아 帝國主義와 資本主義를 동일시하는 풍조가 있어, 新生國의 經濟的 獨立은 植民地資本主義體制의 타파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는 思想이 더욱 강조된다. 게다가 心理的인 側面에서도 新生國에 있어 資本主義라

11) 梁東安, Ibid., Pp. 51 ~ 53.

는 用語는 그 자체가 증오의 對象이 되기 일수이다. 실제로 아시아·아프리카 諸國을 植民地로 만든 것은 바로 西歐強大國의 資本主義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理由로 말미암아 新生國은 社會主義를 환영한다. 그러나 新生國의 社會主義는 마르크스적인 것과는 다르다. 우선 그 발달에서부터 마르크스 社會主義는 부르조아계급의 프롤레타리아계급에 對한 착취에 반발한 것인데 反해 新生國의 社會主義는 植民本國의 資本主義가 植民地를 착취한데 대해 반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前者는 階級意識에 입각한 것인데 反해 後者는 民族主義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新生國에서는 民族의 統合을 위해서는 계급의 對立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양되어야 하며, 國家建設을 위해서는 國家消滅論과 같은 마르크스의 主張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新生國에 있어서의 社會主義는 植民主義 및 資本主義에 對한 단순한 반발에서 나오는 일종의 상징적 구호인 셈이다. 그저 國家가 經濟를 통제하고 土地改革을 강제로 실시하는 정도의 內容을 가진다.

또한 新生國에는 마르크스의 社會主義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존재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印度社會主義, 아랍社會主義, 아프리카社會主義 등은 일종의 개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新生國에서는 社會主義가 실현될 기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西歐式 民主主義가 실현될 기반도 없다. 일반적으로 신생국의 국민은 우선 貧困하므로 民主主義의 精神的 條件인 市民意識의 성장이 없으며, 다음 政黨政治의 기반도 없다. 政黨政治 문제만을 놓고 보더라도 新生國은 民族獨立運動 過程에서 民族團結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反對라는 것은 背反視되었으며, 獨立을 맞이하여 더욱 團結하여 국가건설을 꾀해야 할 때 反對를 내세운다는 것은 民族에 對한 反逆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支配的이다.

어쨌든 新生國에는 이처럼 社會主義나 民主主義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社會의 기본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新生國의 指導者들은 對立하는 이 두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자기 民族의 個性에 적합한 독특한 政治體制를 구현할 것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例: 니에레레의 탄자니아社會主義 등).

이에 더하여 新生國政府가 이데올로기 논쟁을 삼가하는 또 하나의 理由가 있다. 그것은 新生國이 獨立함에 따라 民族이라는 共同體가 출현하게 됐지만, 그와 같은 民族이란 共同體는 新生國에 있어서는 분열되기 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民族意識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植民主義에 對抗하여 싸우면서부터

인데, 新生國이 獨立하여 植民勢力이 물러간 시점에서선 그와 같은 民族意識은 약화되고 傳統的인 種族主義 및 地域主義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이 분열하기 쉬운 民族에게 이데올로기 論爭이 가미될 때, 그것은 民族의 分裂을 조장하는 것이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新生國의 政治指導層은 民族統合 또는 國民形成의 效果를 얻기 위하여 國際的으로 非同盟中立主義 外交政策을 취하게 된다.

요컨대 新生國은 國內에서의 自立的 經濟發展과 國民形成의 욕구, 그리고 社會主義, 資本主義, 西歐民主主義 및 프롤레타리아 獨裁 모두가 다같이 異邦的이라는 인식하에 對外的으로 非同盟中立主義 外交政策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非同盟主義에 의해 형성된 非同盟運動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發展해 갔는가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하자

3. 非同盟運動의 發展過程

非同盟運動의 起源은 1950年代 冷戰이 절정기에 달했던 國際關係속에서 東·西間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에 초연하여 第三의 立場을 추구한 印度의 네루 外交,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 外交, 유고의 티토 外交, 이집트의 나세르 外交, 가나의 앙크루마 外交 등과 같은 積極的 中立主義에서 비롯되었다.¹²⁾ 이와 같이 기존의 國際關係속에서 새로운 變化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최초로 國際的 結社의 形態를 갖게된 것이 1955年 4月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開催된 아시아·아프리카會議이다.¹³⁾ 同會議에는 아시아·아프리카 29個國(옵서버 3個國)이 參加했는데, 同會議에서 採擇된 10個原則은 ① 基本的人權, 유엔의 目的과 原則尊重, ② 主權 및 領土保全의 尊重, ③ 人權 및 國家의 平等, ④ 內政不干涉, ⑤ 個別 또는 集團防衛權 尊重, ⑥ 大國의 特殊利益을 위한 集團防衛協定의 使用禁止 및 他國에 對한 壓力禁止, ⑦ 侵略行爲 및 侵略의 威脅과 兵力使用의 禁止, ⑧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⑨ 相互利益과 協力の 增進, ⑩ 正義와 國際義務 尊重 등을 內容으로 하여 反植民主義, 民族主義, 平和主義 理念을 기초로 하고 있다.

12) 초기의 非同盟運動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參照. J.W. Burton, "Introduction to Nonalignment," J.W. Burton, ed., Nonalignment (New York: James H. Heineman, Inc., 1966), pp. 11~27.

13)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第三世界の 動向」〈立法參考資料 第201號〉(서울: 國會圖書館, 1977), p. 110.

非同盟運動은 아프리카의 새로운 新生國家가 증가됨에 따라 더욱 強化되었다. 1961年9月에는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티토를 비롯한 나세르, 네루, 스카르노, 앙크루마 등 25個 國家의 頂上級 代表가 參加한 가운데 全世界의 非同盟勢力을 규합하는 第1次 非同盟會議를 開催하였다. 이 會議에서 特記할 事項은 非同盟의 參加資格基準¹⁴⁾을 決定함으로써 최초로 非同盟에 對한 實際的인 定義를 부여했다는 점이며, 아울러 反동會議에서 보다는 世界問題에 對한 보다 具體的 關心이 傾注되었다는 點과 政治的 自主路線과 經濟的 自立, 自主問題에도 큰 比重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非同盟運動은 급속히 勢力을 強化하여 1964年 10月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第2次 非同盟首腦會議에서는 會員國이 47個國으로 늘어났다. 同會議에서는 非同盟主義를 宣揚했을 뿐 국제적인 큰 役割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60年代 中後半에 들어서 스카르노, 앙크루마 등이 國內政變으로 失脚되고 네루, 나세르 등의 非同盟主役들이 死亡하여 비동맹세력은 일시 退潮를 경험했다. 그러나 70年代 벽두부터 非同盟勢力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70年 9月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53個國이 參席한 가운데 개최된 第3次 非同盟會議에서는 非同盟그룹의 주도권이 아프리카의 急進的인 政治勢力에 의하여 장악되었으며 反美的 色彩가 강한 左傾그룹들이 得勢하는 상황이었다. 이 會議의 決議內容을 보면 그러한 현상을 엿볼수 있는 바, 그것은 주로 先進國의 後進國에 對한 착취의 止揚, 貿易격차해소 및 後進國開發問題 등 이었다.

1973年 9月 알제리의 알지에에서 75個國이 參加한 가운데 열린 第4次 非同盟會議에서는 政治 宣言과 經濟宣言을 채택하였고, 또한 國際政治秩序에 맞추어 非同盟의 位置를 새로이 定立하는 問題가 討議되었다. 한편 同會議에서는 反美的인 아프리카急進勢力의 영향으로 韓半島問題에 관한 北韓側의 決議案인 駐韓 美軍撤收, UNCURK 解體,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反對등이 採擇되었다.

非同盟會議의 北韓偏向的인 傾向은 1973年 이후 보다 분명하게 노정되기 시작

14) 同會議에서 決定된 非同盟國家의 資格基準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떠한 블록에도 속하지 않고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하여 自主的으로 政策을 수행할 것.
 - ② 民族解放運動을 支援할 것.
 - ③ 冷戰에 말려드는 여하한 多邊的 軍事同盟에도 加入치 않을 것.
 - ④ 東·西블럭의 강대국과 雙務的인 軍事同盟을 체결하지 않을 것.
 - ⑤ 軍事條約에 의하여 自國領土內에 外國의 軍事基地 設置를 許容하지 않을 것.
- 李承憲, 「第三世界の 動向推移와 그것이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影響」(서울: 國土統一院, 1977), P.6.

하였다. 1974年 第29次 유엔總會에서 非同盟調整委員國中 다수가 北韓의 主張에 同調하는 立場을 取하였으며, 1975年 3月 하바나에서 열린 非同盟調整委員會(17個國)는 北韓을 非同盟會員으로 加入시킬 것을 要旨로 하는 加入勸告案 및 北韓路線支持文을 採擇하였다. 이어 同年 8月 페루의 리마에서 개최되었던 第5次 非同盟外相會議에서 北韓은 越盟, PLO 등과 함께 加入에 成功하였다.

1976年 8月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第5次 非同盟會議는 會員國이 86個國(PLO까지 합치면 86個國)인 대규모 國際會議로서, 政治宣言과 非同盟諸國의 經濟的 地位向上을 추구하는 강경한 經濟宣言 등 광범하고 具體的인 世界問題가 討議되었다.¹⁵⁾

1979年 9月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열린 第6次 非同盟會議에서는 強·穩健派間的 심각한 대립을 보였는데, 특히 개최국인 쿠바는 역대 非同盟會議에서 전례가 없었던 反美·親蘇決議案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非同盟運動을 蘇聯의 同盟으로 전환시키려는 策動을 노골화하였다. 즉, 이 회의의 決議案 초안에서 쿠바는 世界의 모든 분쟁의 책임을 美國에 전가시키면서 蘇聯이 第3世界의 유일한 友護國이라고 주장했는데, 유고의 티토大統領은 다른 穩健派 지도자들과 함께 非同盟의 獨立性 維持를 위해 이에 強力히 도전함으로써 하바나會議는 非同盟의 分열 가능성을 노정했던 것이다. 한편 同會議에서는 後進國중 資源保有國과 資源不足國間的 葛藤이 노골화되기도 했다.¹⁶⁾

第7次 非同盟會議는 1983年 3월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최국의 간디首相은 하바나會議 이후 노정되어온 強·穩健派間的 對立을 緩和하고 非同盟의 본래의 理念을 고수하기 위해, 政治面에서의 脫이데올로기, 經濟面에서의 西方側과의 대결이 아닌 協調라는 現實主義的 態度를 취했다.

이 會議의 重要 의제로는 캄푸치아 문제, 아프간 문제, 이란·이라크 戰爭, 나미비아 독립문제, 포클랜드 문제 등 諸紛爭이 부각되었으나, 의장국인 인도는 이러한 問題보다도 核武器 生産開發·保有·配置 등을 포함한 核凍結을 中

15) 河環根, “史的 考察로 본 非同盟國,” 「國際問題」(1975年 11月), pp. 16~24; 安秉永, “北韓의 非同盟政策,” 「海外問題」, Vol. 9 (1977), pp. 87~88.

16) 洪淳鎭, “第3世界,” 梁興模, 李相斗, 李瑞行, 洪淳鎭外, 「現代思想과 體制比較論」(서울: 螢雪出版社, 1984), p. 224.

心으로 하는 軍縮問題와 世界의 交易條件 및 國際金融의 改善을 겨냥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樹立 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소득있는 政治的 論爭 보다는 실질적인 生存手段의 確保라는 문제를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볼 때, 이제 非同盟運動은 뚜렷한 現實化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同會議에서는 폐막에 앞서 強大國들에게 보내는 13개 항의 뉴델리 메시지를 채택하고 核武器 競争을 지양,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외채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第3世界 國家들에게 支援해 줄 것을 要求하기도 했다.¹⁷⁾

以上の 第1次에서 第7次에 이르기까지 非同盟會議의 性格과 그 추세를 일괄해보면, 第1次, 第2次는 個別國家의 政治的 獨立 및 安保的 次元에서 冷戰의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反植民主義, 反帝國主義 및 中立主義를 標榜하는 이데올로기의 傾向이 두드러졌으나, 第3次, 第4次, 第5次, 第6次, 第7次的 非同盟會議에서는 명백히 經濟的 側面이 강조된 資源民族主義가 支配的인 現象으로 나타나 經濟問題, 즉 南北問題에 대한 관심으로 轉換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非同盟勢力的 擴大와 더불어 非同盟그룹의 主導權이 壓倒的으로 아프리카勢力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¹⁸⁾ 이들의 結束이 強大國 中心의 國際政治를 非同盟勢力 主導型으로 유도하여 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17) Ibid. P.225.

18) 歷代 非同盟頂上會議 開催現況은 같다.

會議名	年 度	地 會 員 國 家					
		아시야	中 東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기 타	총 계
반 동 회 의	1955	15	7	6	0 ^{⊙*}	1	29
제1차비동맹회의(벨그라드)	1961	7	4	11	1(3)	2	25(3)
제2차비동맹회의(카이로)	1964	8	7	29	1(9)	2(1)	47(10)
제3차비동맹회의(루사카)	1970	8	7	32	4(9)	2	53(9)
제4차비동맹회의(알지예)	1973	12 ^{⊙**}	12	41	7(8)	3	75(8)
제5차비동맹회의(콜롬보)	1976	15	12	48	7(9)	3	86(9)
제6차비동맹회의(하바나)	1979	16(1)	13	49	11(11)	3	92(12)

註: * 獨立國만 包含

⊙* 옵서버資格으로 參加한 國家

⊙** 베트콩이 월남을 代表, 따라서 계산에서 除外

朴尙植, 「非同盟運動과 韓國」(서울: 外務部外交安保研究院, 1979), P.5.

오늘날 國際政治에서 非同盟 會員國들은 유엔內에서 多數를 占하고 있다는 단순한 算術的인 計算만으로서도 그 存在를 無視할 수 없지만, 그 이데올로기의인 同質性和 團合된 力量은 非同盟運動의 展開過程에서 계속 問題點으로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즉, 이들 國家들이 처해 있는 歷史的, 地政學的, 現實的 諸般 與件과 國家利益의 相異, 相互間의 政治的 見解差에서 오는 盟力, 共產圈, 非共產圈을 포함한 여러 異質國家의 混入으로 명백한 政治的 中立性的 결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1970年代 이후 국제적인 緊張緩和, 多極化가 促進됨에 따라 非同盟運動은 脫冷戰時代에 對應하는 內部的 結束과 團結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非同盟運動은 비대해진 外形만큼 多樣性和 分裂을 내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非同盟의 參加資格 基準이나 그 순수성에 대한 問題¹⁹⁾가 새롭게 提起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과 관련되는 것이다. 사실상 방대한 國際的 結社로 擴大된 非同盟 그룹이 스스로를 하나의 行動主體로 해서 集團的 機能이나 性格을 명백히 해 줄 항구적인 組織이나 機構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非同盟運動은 이와 같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2次大戰 이후의 국제정치 무대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음章에서는 이러한 非同盟의 國際政治上的 役割에 關係 論해 보겠다.

Ⅲ.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非同盟의 役割

2次大戰 이후 탄생한 非同盟은 美·蘇強大國 中心의 國際政治下에서 弱者의 立場에서 여러 役割을 수행해왔다. 그것을 좀더 자세히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이 高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非同盟은 階層的 構造의 國際政治속에서 弱小國이 바랄 수 없었던 地位와 役割을 얻게 되었다. 非同盟은 外交政策을 둘러싼 激論으로 생기는 國論

19) 예를 들면 非同盟會員國들을 볼 때 外國에 軍事基地를 許容하고 있는 이디오피아나 美國과 雙務的인 防衛條約을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諸國들이 參與하고 있으며, 1970年 第3次 루사카 非同盟會議에서는 英聯邦 5個國 防衛協定에 參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加入이 승인되었고, 1973年 第4次 알지에 會議에서도 英國의 海軍基地를 許容한 말타의 加入을 승인하였다. 또한 1975年 리마 外相會議에서는 中·蘇와 相互 防衛條約을 맺고 있는 北韓을 非同盟國으로 加入시키고, 1976年 第5次 콜롬보 會議에서는 바르샤바條約國인 루마니아, 나토會員國인 포르투갈, 美國과 防衛條約을 맺고 있는 필리핀 등이 내빈국으로 參加하였다.

國土統一院, 「時事情報資料」(1978年 8月), pp. 43~44 參照.

분열을 막아 非同盟國家의 國論統一에 寄與하며, 強大國 中心의 國際政治에서 平和의 사도로서 世界平和에 寄與하고 있다는 自負心을 新生國들에게 줌으로써, 이들의 心理的 慾求를 充足시키며 非同盟 政治指導者들의 國內· 國際政治에서의 影響力強化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非同盟은 國際社會의 道義的 힘으로 크게 부각하게 되었다. 非同盟은 民族自決, 獨立과 主權尊重, 平等, 강압의 배제, 힘의 政治의 제거, 人種差別撤廢, 平和共存 등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普遍的 原則을 내세우므로 이러한 원칙에 의해 창출된 世界輿論이 일반화해감에 따라 도의적인 힘으로서의 非同盟의 役割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²⁰⁾

둘째, 非同盟은 強大國間의 紛爭을 調整· 仲裁함으로써 平和維持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非同盟은 強大國間의 紛爭解決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고 調整의 役割을 해 왔다. 非同盟國家들은 이 役割을 맡기에 적절한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非同盟國家들은 強大國과 特別한 유대관계가 없으며, 世界도처에 利權을 가지고 있어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強大國들과는 다른 입장에 있어서 強大國間의 紛爭을 비교적 客觀적으로 評價할 수 있는 立場에 있기 때문이다. 非同盟國家들이 軍事力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長點으로 作用하게 되며, 軍事的 野心을 가졌다는 의심을 받지 아니하고 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여러 提案을 할 수 있게 된다.²¹⁾

韓國戰 당시 인도의 네루수상의 휴전 중재와 콩고사태시의 비동맹지도자들의 역할은 좋은 예이다.²²⁾

셋째, 非同盟은 弱小國의 役割增大와 地位向上에 重要한 役割을 하였으며, 國際社會의 開放化와 民主化에 寄與하였다. 또한, 非同盟은 國際政治의 勢力으로 登場함으로써 植民地의 清算과 新生國의 國際社會進出을 促進시켰을 뿐 아니라 新生弱小國들을 고무시켰으며 新生國들의 主權, 獨立 및 領土 尊重, 차별철폐, 生活向上을 도모하였다.²³⁾

오늘날 國際平等에 對한 열망은 국내적으로 市民들이 個人的 존엄성과 동질성을 주장하면서 王政에 對해서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도처에서 볼 수

20) 金相俊, loc. cit., PP.78 ~ 79.

21) Ibid., P.79 ; J.W. Burto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PP.228 ~ 229 參照.

22) Myron Weiner, loc. cit., P.168.

23) 金相俊, loc. cit., P.80.

있다. 이와 같이 國際的인 平等에 對한 열망이 政治的으로 표현된 것이 非同盟 運動이다.²⁴⁾

또한 新生國들의 대거 進出로 國際社會는 전례없이 開放社會化되었고, 國際社會는 오늘날 平等과 經濟的 成長을 志向하는 국가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非同盟國家들과 新生弱小國들의 영향은 유엔에서 잘 볼 수가 있다. 그들의 參加와 活動으로 유엔은 크게 民主化되었고 보다 非同盟國家의 性格에 맞는 기구로 변모하였다. 즉, 그들은 유엔을 弱小國內의 紛爭에서만 平和를 유지하는 機構가 아니라 弱小國들이 強大國의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機構로 사실상 바꾸어 놓았다. 總會의 機能이 크게 強化된 반면, 安全保障理事會의 機能이 상대적으로 弱화되었으며, 安全保障理事會가 총회의 한 집행기구라는 인상마저 든다. 平和維持를 위해서도 유엔은 集團安全保障原則에 의한 強權發動보다는 권고와 支配的 世界輿論의 合意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었다. 이러한 유엔의 변화는 非同盟 路線에 맞는 事態進展이기도 하다.²⁵⁾

네째, 美·蘇兩超強大國이 서로 대치하는 冷戰이라는 狀況下에서 非同盟勢力이 全人類의 염원인 世界平和라는 가장 보편적인 원칙을 주장함으로써 世界輿論을 자극하게 되자, 美·蘇兩國은 긴장 완화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경직되었던 國家들이 점점 實利中心으로 行動하게 되어 美·蘇中心의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의 이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非同盟勢力은 國際體制를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 변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非同盟勢力은 南北問題를 通하여 新國際經濟秩序(NIEO)를 주장함으로써 西歐中心의 國際資本主義經濟體制를 變化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非同盟이 國際政治에 登場하여 平和志向的인 役割을 수행하고, 이들의 勢力이 점점 強化됨에 따라, 힘을 重視하는 現實主義理論인 「힘의 모델」로서는 現 國際政治 現象을 충분히 分析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非同盟의 登場이 國際政治 分析에 있어 「힘의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4) Leo Mates, "Nonalignment and the Great Powers," *Foreign Affairs*, Vol. 48, No. 3 (April, 1970), P. 534.

25) 金相俊, loc. cit., P. 81; J.W. Burton, op. cit., PP. 230 ~ 231 參照.

Ⅳ. 非同盟과 國際政治의 新모델

2次大戰 이후의 國際政治를 살펴보면 非同盟勢力의 擡頭로 인한 平和志向의 경향과 國際社會內的 相互依存關係의 深化 및 非軍事的 經濟問題에 對한 關心의 增大로 말미암아 힘의 사용에 따른 코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힘의 役割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다.²⁶⁾

이와 같이 힘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動的인 狀況下에서는 힘만으로서 國際政治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理論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 즉, 「 힘이라고 정의되는 國家利益 」²⁷⁾이라는 觀點에서 國際政治를 分析한 現實主義理論인 「 힘의 모델 」 (Power model)은 國際關係의 變化와 變化過程 등 動的인 側面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없는 理論이다. 이러한 「 힘의 모델 」은 機械的(mechanical) 모델이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變化(irreversible change), 生長, 進化, 새로운 것, 目的 등의 概念들과는 거리가 먼 모델이다. 이 기계적 모델과 같은 分析모델에 적합한 것은 一聯의 간단한 不變의 法則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²⁸⁾

그래서 「 힘의 모델 」은 國際政治에서 變化를 초래하는 힘이나 그 過程 등은 度外視하고 있으므로 國際시스템이 安定되고 權力만이 중요한 變數였던 時代의 靜的인 國際시스템의 分析에는 적합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國題社會가 急變하고 있는 時代의 國際政治의 動的인 側面을 分析하는 데는 적합치 못하다.

또한 國際政治의 世界가 「 힘의 모델 」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힘의 絕對的이고 支配的이며 權力一元的인 世界일 경우의 政策決定은 機械的이며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나, 現實의 世界가 그와 같은 世界로부터 멀어질수록 政策決定의 過程은 복잡해지며 考慮해야 할 事項들이 많아진다. 또, 國家의 행동과 政策決定은 힘이란 獨立變數의 變化에 따라 변화하는 從屬變數의 性格을 띠고 있다는 立場에서 벗어나게 되고, 國家들이 獨自的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질

26) 金相俊, 「 國際政治理論Ⅱ 」 (서울: 三英社, 1980), PP. 78 ~ 84 參照.

27)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4th. ed: New York: Alfred A. Knoff, 1967), P. 5.

28) Karl W. Deutsch, The Nerve of Government (New York: Free Press, 1963), PP. 26 ~ 30.

金相俊, 「 國際政治理論Ⅱ 」, op. cit., P. 66 에서 재인용.

수록 政策決定과 그 過程은 보다 큰 관심사가 되게 된다. 따라서 非同盟의 대두와 核膠着狀態로 말미암아 힘의 사용이 어려워진 오늘날의 國際政治分析에는 「힘의 모델」보다는 「決定作成 모델」(decision making model)²⁹⁾이 보다 적절하게 된다. 國家가 힘을 사용하여 相對國에 自國의 政策을 一方的으로 밀어부칠 수 없다면, 또 自國의 國力과 利益만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 상대편의 反應을 고려하게 되며 自國의 行動을 환경의 變化에 따라 調整하고 紛爭의 회피, 때로는 目的의 變更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國家間의 관계에서 중요한 과정은 인풋點과 아웃풋點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며, 그 國家가 어떻게 情報를 처리, 利用하며 目的을 어떻게 設定하며 휘드백 메카니즘에 의하여 目的을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지가 큰 관심사가 되게 된다. 특히 핵무기시대에는 目的變更이 요청되며 이는 權力政治의 모델과는 부합되지 않는 개념들이다.³⁰⁾

以上과 같이 「힘의 모델」이 現國際政治를 分析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非同盟이 登場하고 多極體制가 형성됨에 따라, 獨自的으로 行動하겠다고 선언한 國家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國家들은 同盟關係의 軍事力이나 經濟力에 依存해서 자신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으므로 自身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目的自體를 變更하거나 조정에 따라야만 하며, 힘의 사용이나 武力에 依存할 수는 없다.³¹⁾

그러므로 이러한 狀況의 國際政治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힘의 모델」보다는 「決定作成 모델」이나 인풋, 아웃풋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모델」³²⁾(communication model)이 훨씬 더 용이하다.

또한 非同盟과 같이 獨自的으로 行動하며 同盟關係를 피하는 國家들의 自然

29) 「決定作成(decision-making) 모델」이란 國際主體의 組織과 特性을 究明하고 이를 構成하는 政策決定者들의 知覺, 認識構造 등 心理變數들까지 포함시켜 國際主體의 內部組織을 해명하고 있는데, 政治決定 모델에서도 情報의 傳達이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다.

金相俊, 「國際政治理論 I」(서울: 三英社, 1977), P. 14 參照.

30) 金相俊, 「國際政治理論 II」, op. cit., P. 66, P. 69.

31) J.W. Burton, op. cit., P. 236.

32)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란 國際關係를 커뮤니케이션-情報와 情報의 흐름-을 中心으로 分析하려는 모델이다. 社會現象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관련되기 마련이므로, 社會現象을 보는 指標로 커뮤니케이션을 中心概念으로 보자는 것이다.

金相俊, 「國際政治理論 I」, op. cit., P. 10.

發生的인 그리고 組織을 갖고 있지 아니한 모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이 그들을 結束하게 한다. 그들은 강력한 組織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協議와 全員一致로 決定을 하게되므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役割을 하게 된다. 非同盟의 成功의 한 비결이며 非同盟國家들이 국제정치에서 國力에 비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非同盟國家들이 모든 國家들과 커뮤니케이션 회로를 유지하며 公開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데 유래하고 있다. 同盟을 하지 아니하고 事前에 어떤 쪽에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하지 아니하고 모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므로 非同盟은 偏見과 硬直性을 피하며 柔軟性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事態에서 계속 배우며 필요하면 目的까지 바꾸어 事態進展에 調整하게 된다. 同盟은 「커뮤니케이션 모델」과는 맞지 아니한다. 同盟은 커뮤니케이션의 斷切의 징조이며, 誤解와 偏見을 조장하여 충돌을 재촉하게 한다.³³⁾

따라서 非同盟이 마련하는 世界는 協力과 調整을 통하여 世界平和를 達成하려는 世界이며, 이러한 세계를 理解하고 分析하는 데는 「힘의 모델」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나 「決定作成 모델」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V. 結

지금까지 非同盟主義의 概念, 新生國들이 非同盟主義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國內外的인 理由, 非同盟運動의 發展過程, 非同盟의 國際政治上에서의 役割 및 非同盟이 마련하는 國際政治의 새로운 모델을 中心으로 살펴왔다.

現在 非同盟主義를 外交政策으로 표방하고 있는 國家는 무려 100 個國에 달하고 있으며, 非同盟國家內的 資源保有國과 資源不足國間的 갈등을 해결하여 團合된 힘만 발휘할 수 있다면 금후의 國際政治에서 큰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核時代에는 戰爭을 피하여 平和를 守護해야만 한다는 原則은 모든 國家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論理가 되므로 그만큼, 非同盟國家들이 주

33) 金相俊, “國際政治에 있어서 非同盟의 意義” loc. cit., P. 85 ; J.W. Burton, op. cit., P.233, P.237.

非同盟과 國際政治의 新모델

장하는 平和共存, 힘의 政治 배제 등은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힘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 힘의 모델 」만으로 現國際政治狀況을 說明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非同盟이 제시하는 모델은 「 힘의 모델 」을 보완해 줌으로써 國家間의 關係를 說明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장래의 추세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非同盟이 제시하는 論理는 現實主義理論인 힘의 政治를 탈피하여, 人類의 영원한 盟원인 理想主義로의 발돋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